

장흥군, 도시가스 공급 확대 '에너지 복지' 박차

관로 구축·LPG 배관 교체 등 시설 개선...가격 내리고 안전성 제고

장흥군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 복지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흥군은 지역민들이 저렴하고 안전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로 구축과 시설 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원 확대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LPG배관망 구축사업,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골자로 추진한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등유, LPG,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시가스는 천연료에 비해 안전하고 저렴한 연료로, LPG(20kg사용자 기준) 1885.91원/㎡, 등유 1835.34원/㎡보다 훨씬 저렴한 913원/㎡으로 40% 이상 연료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장흥군은 지난 2015년 첫 공급을 시작하여 현재 장흥읍 내 58% 공급을 완료하였고, 오는 2023년 내에 60%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군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집집마다 공급 배관을 연결하는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기존 가스용기의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도시가스 수준의 LPG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가격면에서는 기존 LPG용기 2116원/1kg에서 LPG배관망 사업으로 개선 후 1213원/1kg으로 사용량에 따라 20~40% 연료비를 줄일 수 있다. LPG용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LPG용기 고무호스 파손 등의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금속배관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어서다. 관련 법령에 따라 2030년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의무 교체하여야 하고 미개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장흥군 관계자들이 에너지원 확대를 위한 LPG배관망 구축 공사를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관계자는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적극 확대해 군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장성군, 삼서면·북이면

장성군이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삼서면 소룡2리와 북이면 신평리에서 마을 별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종이 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실제 현황대로 새롭게 측량하는 사업이다. 2023년 사업 대상지는 삼서면 소룡2리와 북이면 신평리 2개 지구로 규모는 645필지(38만 5851㎡)다. 장성군은 설명회를 통해 사업 추진 배경과 절차, 기대효과 등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 의견도 청취한다. 오는 16일까지 예정된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치면, 전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내년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문의는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1-390-7480)으로 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정확한 지적 정보를 구축하면 디지털 지적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태공들의 핫플레이스' 강진 바다낚시 어선 전진기지 '시동'

군, 고흥 녹동항서 어선 유치 나서 어촌사업, 해양 레저관광 전환 예고

강진군이 바다낚시 어선 전진기지 육성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원 강진군수는 최근 고흥 녹동항을 방문해 강진 출신 바다낚시 어선 최기남 선장과 면담하는 등 바다낚시 어선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녹동항은 지난 11월 1일 클린 국가여행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며 본격적인 해양수산관광지로서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곳으로, 강태공들의 핫플레이스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강 군수는 "마량항은 일년내내 낚시가 가능한 온화한 기후와 청정한 바다 환경을 갖고 있다"며 "여기에 군은 앞으로 바다낚시 어선을 위한 기반 시설을 대거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문은 민선8기 60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바다낚시 어선 전진기지 육성'을 위한 행보로 강진군은 지금까지 수산업 위주로 진행돼온 군의 어촌개발사업이 해양 레저 관광으로 대전환될 것을 예고했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2010년 625만 명이던 낚시 인구는 올해 973만 명으로 늘어나 2024년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강진원 강진군수가 최근 고흥 녹동항을 찾아 강진 출신 최기남 선장과 면담하는 등 바다낚시 어선 유치에 나섰다. <강진군 제공>

이에 군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낚시 시장 선점을 위해 내년 4월까지 바다낚시 어선 전용 접안시설을 설치해 일반 어선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마량항 이전 바다낚시 어선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유치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강 군수는 최 선장과 만남을 시작으로 완도항, 녹동항, 여수항 등에서 1000명 이상의 온라인 모임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낚시 어선 선장을 만나 유치 활동을 펼치고 낚시 동호회와 SNS를 중심으로 홍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바다낚시 어선 유치는 낚시 어선 종사자 인구 유입뿐 아니라 낚시를 즐기기 위한 관광객 증대와 낚시 도구 판매 등 지역 상가 소득 증대 등 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미래의 큰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만이 내일의 먹거리를 키울 수 있다"며 "마량항이 갖고 있는 장점을 기반시설을 확충해 매력적인 바다낚시 어선 전진기지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담양 산타 3년만에 오시네

군, 산타축제 준비 분주...23일부터 메타프로방스 일원

담양군이 겨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담양산타축제' 준비로 분주하다. 담양군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산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주제로 담양 메타프로방스 및 원도심 일원에서 담양산타축제를 개최한다. 군과 담양산타축제추진위원회는 메타랜드 일원과 중앙공원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축제장 곳곳에 특색 있는 포토존과 크리스마스 소품들을 배치해 올 겨울 관광객 맞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주요 행사 프로그램으로 고척대 퍼레이드와 함께 개털, 재즈, 마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운영하고, 크리스마스 피라미트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할 계획이다. 원도심 거리에는 축제와 어울리는 포인세티 꽃을 곳곳에 배치해 화사한 도심 연출하고 중앙공원과 LP음악축전소 일원에서는 개털 음악이 울려 퍼지며 연말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전망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3년 만에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군민과 관광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는 축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화순군 '전남 산림환경대상' 수상

고용길 산림산업과장 행정부분

화순군이 최근 순천목재문화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제2회 전라남도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에서 행정부분 산림환경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8일 개최된 시상식은 산림청 후원으로 사단법인 대한민국 산림환경포럼에서 주최하고 있다. 수상분야는 7개 부문(자치, 입법, 행정, 교육, 조합, 단체, 임업)으로, 화순군 수상자인 화순군 산림산업과장(고용길·사진 오른쪽)은 자치단체 산림행정 총괄자에게 수상하는 행정부문에서 산림환경대상을 수상했다. 고용길 과장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화순군의 랜드마크가 된 만연산 치유의숲 센터 조성,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조성, 숲속의 집 만들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다른 사명감과 열정으로 소중한 산림자원 조성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다. 한편 같은 시상식에서 화순군의 임업후계자인 최남우 한국산림경영인협회광주전남지회 지회장은 임업부문 산림환경대상을 수상했다. 고용길 과장은 "외국의 유명한 나무를 보면 몇



백년이 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라며 "우리가 하고 있는 산림 행정은 당장의 성과는 아닐 수 있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최고의 자산으로 앞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산림행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옐로우시티' 대체할 장성 브랜드 찾는다

군, 내년 1월11일까지 공모전

장성군이 지역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찾기 위해 대국민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장성군은 내년 1월 11일까지 '옐로우시티(yellow city)'를 대체할 지역의 새로운 상징문구 공모전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팀 참여도 가능하다. 장성의 정체성을 담으면서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7자 내외의 문구를 착안하면 된다. 도시 브랜드를 구상했다면 BI 공모도 참여할 수 있다. BI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줄임말로 브랜드 이름이 포함된 로고, 서체, 캐릭터 디자인 등을 말한다. 네이밍 분야는 총 100만원, BI 분야는 총 400만원의 상금이 책정됐다. 브랜드 네이밍에 응모해야만 BI 분야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 수상은 하지 않는다. 수상자는 자체 심사,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내년 2월쯤 선정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도시 브랜드 개발을 위해 이번 공모를 마련했다"면서 "다양하고 참신한 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흥군, 특산물 공동연구·산업화 속도

무산김·표고버섯 업체 등과 협약

장흥군이 장흥 특산물 공동연구와 산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업무협약에는 김성 장흥군수와 장흥무산김(주) 대표, 강남김(주) 뉴트리원 본부장, 박승배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 기관들은 장흥 표고버섯을 비롯한 장흥 특산물 공동연구와 산업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으로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과 장흥무

산김(주)에서는 표고 김스낵을 개발하고 뉴트리원은 국내 유통 및 해외 수출을 전담할 계획이다. (주)뉴트리원은 루테인 지아잔틴, 콜라겐 파우더 등 전문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유통하는 회사로 연 매출 100억원, 내수 매출 2700억원, 종업원 수 162명인 주목받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표고버섯을 활용한 산업화 제품 개발이 생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욱 많은 특산물을 산업화 하여 고부가가치를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군 자율형 건물번호판 '도시미관 향상' 호평

전남도 주관 공모전 수상

함평군이 전남도 주관 2022년 자율형 건물번호판 공모전 우수설치 분야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표준형과 달리 자유롭게 디자인해 제작·설치가 가능한 건물번호판을 말한다. 도로명주소 홍보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우수설치와 디자인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 함평군은 우수설치 분야에 참가해 '장년길 40'과 '장군로 926-12' 자율형 건물번호판으로 각각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함평의 건물번호판은 건물의 용도와 번호판이 조화롭게 제작돼 2차 도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장정진 함평군 민원봉사실장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특색 있고 아름다운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